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오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 미 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친밀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오해에 대한 34명의 면담 조사를 통해 오해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었다. 오해는 오해자와 오해를 불러일으킨 행동을 한 상대방(오해자가 본 바)간의 귀인 부위(내부, 외부)에서의 차이보다는 내부 원인들 간의 귀인 차이로 생긴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정적 및 중립적인 의도에서 나온 행동을 자신에 대한 부적 감정이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적 감정, 또는 자신에 대한 부적의 의도로 오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드물게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정적 감정(호감)으로 지각하는 오해도 있었다. 오해를 일으키는 단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주로 오해자 자신을 향한 부적 행동과 자신이 아닌 제 3자를 향한 정적 행동이었다. 오해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은 불쾌감과 화, 자존심의 상함, 배신감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오해되었음을 깨닫는 시간은 자신에 대한 부적 의도로 오해했을 때가 가장 빨랐으며 자신을 향한 정적 감정으로 오해했을 때가 가장 늦었다. 결과에서 시사되는 점들과 추후 연구를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사람들간의 오해는 대개 사소한 일로 시작되며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한 두번은 자신이 오해를 당했거나, 누구를 오해한 경험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개는 불쾌감을 느끼곤 했을 것이다.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흔히 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만남을 꺼리는 바람에 오랫동안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며, 겉으로는 오해를 풀었다고 하면서도 그 감정의 썩어가는 상대방 또는 자신에 대한 재평가로 남아서 투명한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 일반에 대한 자신의 사고기술을 수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오해란 사상(事象)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학에서 오해는 연구주제로 다루

어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찌기 Ichheiser(1949)가 오해란 제목의 책을 낸 바는 있으나 심리학적인 접근의 연구는 아니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친밀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관계에의 만족을 귀인적 조망에서 다른 연구들(Fincham, 1985; Fincham et al., 1983, 1987a, 1987b; Holtzworth-Monroe & Jacobson, 1985; Thompson & Kelley, 1981; Orvis, Kelley, & Butler, 1976) 속에서나 오해와 연관된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발견하고 시사받을 뿐이다.

이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먼저 개괄해 본다. 결혼한 배우자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귀인활동을 하게 되며(Holtzworth-Monroe & Jacobson, 1985), 결혼에 만족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한 것과 동일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경우에서보다 더 총체적인(global) 귀인을 하고 결혼상의 어려움을 상

이 연구 결과의 개요를 처음으로 발표했던 사회심리 집단체미나에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모아주고 평가해 준 여러 동료들과 후배들, 그리고 차재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방의 탓으로 더 돌리며, 결혼에 만족하고 있는 배우자들보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이 더 부정적인 의도로 나왔다고 보고, 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며, 더 비난받을만한 것으로 보고, 자신에 대한 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Fincham, 1985; Fincham et al., 1983, 1987a, 1987b; Thompson & Kelley, 1981). Orvis 등(1976)은 친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자신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서로 엇갈린 경우들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행위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군(群)과 파트너가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군(群)을 구분할 수 있었다. 행위자는 주로 정황/환경, 대상, 행위자의 상태 등을 이유로 내걸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행위자의 선호·신념, 상대방에 대한 관심/두사람의 유익, 활동의 바람직성을 이유로 내걸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들을 많이 사용하였고, 파트너 쪽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이나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활동이 주는 간접적인 긍정적 결과 등을 내세워 행위자의 행동을 설명하였다.

오해는 내가 행위자의 행동원인을 잘못 짚었다던가, 상대방이 나의 행동 원인을 잘못 짚었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전자에서는 '내가 오해했다'고 할 것이며 후자에서는 '내가 오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해하는 경우만을 생각해 보려 한다. 오해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행위의 수령자(recipient)가 행위자의 행동 원인으로 자신이 추론한 것이 행위당사자의 설명과는 다름을 확인하고(혹은 확인 과정이 없어도) 자신의 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술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Orvis 등(1976)의 연구는 친밀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의 행동에 대해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른 경우들을 조사한 것으로 이런 생각에 따르면 모두가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오해란 불쾌감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Orvis(1976) 등의 연구는 물론 오해를 다룬 것이 아니어서 그들이 조사한 행동들에는 행위자 자신의 기호나 습관, 활동, 행위자의 사회적 적응 행동등의 유목에 속한 행동들(예를 들어 흡연행동, 스포츠활동이나 TV시청,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데 이런 류의 행동들은 상대방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에 주로 국한된 행동들이라 보인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 관계 속에 있는 양자 간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오해가 항상 일어나진 않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오해했다'와 '잘못 알았다'를 구분해 쓰듯이 이런 경우들에서는 우리가 서로 생각한게 다르다'거나 '그(상대방)의 입장이 그런가보다'거나 또는 '내가 잘못 알았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자의 관심은 오해자가 심각하게 경험한 오해사상들에 있다. 오해사상이 그런 비중으로 경험되려면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영향을(Holtzworth-Monroe와 Jacobson(1985)에 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심각한 오해들이란 우선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대방의 행동이 오해자 자신 또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행위자의 행동 원인에 대해 오해자 자신이 추론한 것이 행위자의 설명과는 다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그 결과 오해자가 자신의 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기초적인 생각들 속에서 오해 현상에 대한 몇가지 의문들이 떠오른다. 상대방의 행위의 어떤 성질이 설명을 요구하는(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게 만드는지, 행위의 수령자인 오해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며 그 추론은 행위자인 상대방의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 오해자는 자신의 추론이 잘못된 것임을 자발적으로 확인하려 하는지, 얼마나 즉각적으로, 또는 쉽게 확인하는지, 잘못 추론하고 있는 동안(즉, 오해하고 있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끼는... 등등. 본 연구에서는 오해의 유형들,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제, 오해로 인한 영향, 그 해결 방식 등을 연구하는 전초적 단계로서 오해경험들을 면담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오해가 상호접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어나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큰 오해는 서로 접촉이 잦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본 면담에서는 낯선 사람이 아닌 상호 접촉이 잦은 친구나 애인, 및 직장인 간의 오해경험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오해는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자신이 오해를 한 경

우만을 다루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기초적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서 함축되는 연구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있다.

방 법

응답자 부산대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4명과 창원금성공장에 근무하는 남녀 사무직 사원 10명으로 모두 34명이었다. 오해를 하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를 친구, 애인 및 직장내 관계로 임의 설정하였다. 남녀 대학생 응답자에게는 친구관계나 애인관계에서 생긴 오해를, 금성사 직원에게는 직장내 관계에서 생긴 오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관계유형별 연령 평균(범위)은 친구관계 22.4세(20세-26세), 애인관계 22.5세(19세-28세), 직장내 관계는 26.2세(20세-34세)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 집단보다 약간 더 연령이 높았다. 응답자의 관계유형별 및 성별 구성비는 표 1과 같다.

<표 1> 면담 대상자의 구성

조사대상관계	성 별		계
	남	여	
친구관계	7	5	12
애인관계	6	6	12
직장내관계	5	5	10

질차 응답자는 심리학과 강의 중에 실험참가표를 돌려 애인이 있는 사람부터 자원하도록 하였고 나머지의 자원자는 친구관계에서 일어난 오해에 대해 보고하는 조건에 배당하였다. 직장인내의 관계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창원 금성공장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 중 자원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직접 면담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취했다. 면담은 1992년 3월 26일부터 1992년 4월 10일 까지 행해졌다. 면담은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행해졌고 개인당 1시간씩이 소요되었다. 대학생들은 학교내 연구실에서, 직장인들은 창원 금성사내 연구실에서 면담을 했다.

면담의 목적과 내용 오해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1) 친구관계에서의 오해, 2) 애인관계

에서의 오해, 및 3) 직장내에서의 오해를 구분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본 조사에서는 CIP(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 Flanagan, 1954)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자신이 해당관계 내에서 누구를 오해했던 경험들을 상기하여 적게 하고(5개 까지 적을수 있게 했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심각했던 특정 오해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했다. 따라서, 응답된 오해사건은 대개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다. 면담은 미리 구성된 개방식 질문지(an open-ended questionnaire)를 토대로 하여 응답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해 또는 피면담자가 응답한 내용에 대해 서로 자유로이 묻는 방식을 취했다.

질문들은 오해했던 상대방에 대한 정보(어떤 관계, 아는 정도, 친한 정도), 상대방이 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행동, 오해의 내용, 어떻게 오해임을 알게 됐는지의 경위, 오해했을 때의 감정, 오해가 자신, 상대방, 또는 두사람 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오해가 완전히 풀리기까지의 기간 및 계기 등을 묻는 것들이었다.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양적인 자료의 분석과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사례들의 기술을 첨가한 이유는 수리적으로 양화될 수 없거나 양적인 기술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해에 관한 연구는 처음 다루어 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오해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함축된 가설들을 도출해 내는데 유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수리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술하기로 한다.

수리적인 결과들

1) 오해사건의 보고 빈도

응답자들은 자신과 친한 관계(조건에 따라 친구, 애인, 또는 직장인)에 있는 상대방을 오해했던 경험들을 먼저 상기하여 그 경험 내용들을 간단하게 5건까지 적을 수 있게 했다. 전체 34명의 응답자가 보고한 오해 사례수는 107건으로 친구관계에서 43건, 애인관계에서 32건, 직장관계에서 30건씩이 보고 되어 친구관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한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한 사람이 보고한 자신이 오해했던 사례수의 평균은 3.1개로 누구를 오해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기술할 내용들은 각 사람이 보고한 오해한 사례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심각했던 특정한 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들에 대해 분석, 정리한 결과들이다.

2) 오해를 한 대상을 아는 정도와 친한 정도

각 관계 안에서 자신이 오해했던 대상과의 친밀도 평정치가 표 2에 나와 있다. 자신이 오해했던 대상을 아는 정도에 있어서는 직장내 관계일 경우가 다른 관계에 있는 대상보다 약간 아는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의의있진 않았다. 친한 정도에서는 애인관계 대상자가 유의하게 직장관계 대상자보다 더 친한 것으로 나타났다($t_{20}=3.15, p<.01$). 척도의 중간점이 2.5인데 표 2의 평균치들은 직장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상이며 특히 애인 관계에서 친한 정도의 평균치가 두드러지게 크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한 사이에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된 것을 보여 준다.

<표 2> 관계별 오해 대상과의 평균 친밀도

	아는 정도	친한 정도
친구관계 (n=12)	3.25	3.75
애인관계 (n=12)	3.50	4.30
직장관계 (n=10)	2.60	2.60

* 두 척도가 각각 “잘 모른다-아주 잘안다”와 “친하지 않다-아주 친하다”의 명칭으로 묘사된 6점 척도였으며 점수는 0점에서 5점(잘 안다, 아주 친하다)까지로 배점하였다.

3) 오해의 유형

어떤 식의 오해가 주로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 오해자가 추론한 상대방 행위자의 행동 원인(오해 내용)과 오해대상자가 오해의 확인과정에서 제시한 설명(실제 내용)간의 불일치를 한 단위로 하여 묶어 보았다. Orvis 등(1976)의 연구에서는 자신 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든 설명과 상대가 든 설명을 적게 하

여 행위자가 쓰는 원인들과 파트너가 쓰는 원인들을 따로 수합해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오해를 한 경우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해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이 경우 두 사람이 든 원인들의 짝을 한 단위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분류된 오해의 유형과 각 유형별 사례수는 표 3과 같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상대에 대한 정보가 본 연구에서나 Orvis 등(1976)의 연구에서나 다 상대방에게서 직접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응답자에게서 간접적으로 얻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가 오해자와 오해 대상자 양측을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결론이 확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논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해 대상자의 정보는 그/그녀가 오해자인 응답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실제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 대상자로부터 행위의 원인을 직접 얻는다 하더라도 그의 설명이 실제의 자신의 행동원인을 제공해 주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켜 주는 원인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Orvis et al., 1976). 표 3에서도 오해 대상자의 귀인은 오해자인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정적 또는 중립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13 사례) 행위를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외부 원인들(8 사례)로 변명의 구실이 된다. 반면에 오해자인 응답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 행동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19 사례) 들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대방이 내건 자신의 행동 원인(표 3에서는 실제 내용으로 명시)은 외적인데 있었는데 지각자(오해자)가 상대방의 내부적 원인들, 즉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의도,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그런 행동이 나온것이라 판단(오해)한 사례수는 8사례이었다. 이에 비해, 오해 대상자의 행동이 어떤 감정이나 의도, 또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을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나 의도, 또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오해에 이른 경우는 25사례나 된다. 말하자면, 오해 대상자와 그 행위의 수령자인 오해자 간의 귀인의 차이란 주로 내부원인들 내에서의 귀인의 차이란 점이다. 이런 결과는 오해란 주로 개입 한 내부 요인의 종류에 관한 양측의 오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부 원인을 내부의 것으로 오해하거나 내부의 것을 외부의 것으로 잘못 아는 그런 오해가 주종이 아니라는 것

〈표 3〉 오해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사례 빈도

오해내용(오해자귀인) 실제내용 (대상자 자기귀인)	외 부		내 부		계
		감정 (평가) ^a	부적 의도 (동기)	성격	
외부귀인		4	3	1	8
내부귀인					21(5)
감정(평가)		4	(1) ^b		4(1)
정적/중립적 의도(동기)	1	6	6(1)	(1)	13(2)
성격		1		1	2
감정, 의도 없음		2(2)			2(2)
계	1	17(2)	9(2)	2(1)	29(5)

^a 같은 범주가 교차한 칸(cell)의 사례는 내용이 양자간에 서로 다른 경우임. 예컨대, 상대방의 감정과 오해자의 감정이 교차하는 칸에 분류된 사례에서는 상대방과 오해자의 감정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임.

^b ()안의 숫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행동에 대한 실제 내용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의 사례수 임.

이다.

오해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 또는 성격을 오해한다는 결과인데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오해 대상자의 감정을 오해한 경우는 (1)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에서(예를 들면, 내가 싫어서라거나 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행동이 나왔다고 오해한 사례가 9건, (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서(예를 들면, 이성을 대하는 감정으로) 상대가 행동한 것으로 오해한 경우가 3건, (3) 행위자가 제 3의 사람(다른 동성친구나 제 3의 이성)에게 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오해자(응답자)가 지각함으로써 오해가 빚어진 3자간의 갈등관계로 인한 경우가 7건으로 구분된다. 이 세번째 3자관계 간의 갈등은 Heider의 균형이론(1958)에 따르면 p-o, p-q, o-q의 세 요소가 다 +로 균형된 경우에 속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다. Heider는 이런 경우는 균형의 예외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상대의 의도를 오해한 11건의 사례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에서(예를 들면, 날 깔보아서 또는 날 떠나려고) 상대의 행동이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것들이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오해하는 사례가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로 오해 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19사례 대 11사례). 반면에, 오해대상자가 제시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내적인 설명은 주로 파트

너(오해자)에 대한 정적 및 중립적인 의도인 것을 알수 있다(21개 사례 중 13개 사례).

결과적으로, 내부 원인들 내의 귀인의 차이로 인한 오해로서 주된 유형은 오해대상자의 오해자 자신에 대한 정적 및 중립적 의도에서 나온 행동을 그/그녀가 자신에게 부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부적인 의도가 있어서 나온 행동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런 것과는 범주를 달리하여 오해 대상자가 자신에게 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보는 것도 오해의 한 유형으로 나왔다.

관계 유형에 따라 상대의 행동원인에 대한 귀속이 다르게 일어날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4와 같은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관계의 종류에 따라 귀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친구관계나 직장관계에서 보다는 애인관계에서 두드러지게 감정 쪽으로

〈표 4〉 관계 별로 본 오해자의 귀인 유형의 빈도

	귀인 유형			
	외부	감정	의도	성격
친구관계	1	6	4	1
애인관계		9	3	
직장관계		4	4	2

(예를 들어, 내가 싫어서, 나를 존경하지/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단지 친구로서가 아니라 애인처럼 생각해서, 그 여자를 좋아해서) 상대의 행동원인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해 유발 행동

오해 대상자의 표면으로 드러난 행동의 질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정적인 행동, 부적인 행동, 중립적인 행동들로 나누고 그 행동의 방향이 오해자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는지, 오해자 외의 제 3자에 대한 것이었는지, 또는 오해자를 포함한 다수를 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 표 5에 나와 있다.

<표 5> 오해 유발 행동의 유형과 그 빈도

행동의 표적	행동의 질		
	정적	부적	중립적
대상			
오해자	4	17	
제 3자	7	1	3
다수		2	

오해 대상자가 오해자 자신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여겨질 때 오해한 사례가 가장 많아 전체 34개 사례 중 절반인 17개 사례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오해 대상자가 오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7개 사례)였고, 그리고 오해 대상자가 오해자 자신에게 정적(호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해(대개 사랑으로)가 된 경우도 4개 사례가 있었다.

5) 오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성격적 성향판단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 했을 때 오해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성격적인 성향판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무례한 사람'으로 단정한다던가, '건방진 사람', '주제파악을 못하는 사람' 식으로 행동에서 사람으로 일반화시켜 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관계가 경직되거나 단절되기 까지도 한다(차재호, 1988).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표 6> 오해 대상자에 대해 성격적 성향판단이 일어난 사례 빈도

조사대상관계	성별		계
	남	여	
친구관계	2(7)	4(5)	6(12) ^a
애인관계	1(6)	2(6)	3(12)
직장관계	4(5)	2(5)	6(10)

^a ()의 수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전체 사례수임.

오해의 뒤끝으로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성격적인 성향판단이 일어난 경우가 전체 34개 사례 중에서 약 반수에 가까운 15개 사례에서 있었다(표 6). 이런 성격적 성향으로의 귀인 경향은 애인관계에서 가장 적고 친구관계나 직장 관계에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해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가보다' 또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는 식의 성격적 판단은 반수에 가깝긴 하지만 생각만큼 많이 일어나진 않았다. 피면담자들은 오해했을 때 주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몰입된다고 말한다. 본 조사에서, 성격적 성향판단이 반수에 못 미치게 일어난 것은 실체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성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단정짓는 다소 심한 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본 면담에서 상기된 오해 사건들이 대개가 다 풀린 후에 회상된 것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관계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오해사건들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성격 파악은 웬만큼 된 상태이므로 이미 파악된 성격의 수정보다는 의도나 감정의 파악에 신경이 더 쓰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애인관계는 친구나 직장관계보다 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면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 파악이나 감정 확인이 더 중요해지므로 상대적으로 가일층 성격적 성향판단이 더 적게 일어났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런 결과는 의도나 동기 또는 감정의 지각이, 특히 의도 지각이 반드시 성격적 성향판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어떤 경우 성격적 성향판단으로 까지 연결되며, 어떤 경우 연결되지 않는지를 구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6) 오해 시에 느꼈던 감정들

오해란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이때 느끼는 감정은 오해대상자가 내거는 실제 원인에 상관없이 그 행위의 대상인 지각자(오해자 또는 응답자)가 상대방 행위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오해하는 지각자가 파악한 상대방의 행동원인에 따라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3의 오해자(응답자)의 귀인 유형 중에서 빈도가 낮은 2유형은 제외하고 빈도가 높은 2유형 즉, 상대방의 행동을 상대방의 감정 또는 평가와 상대방의 의도 또는 동기에 귀인한 유형만을 고려하기로 하여 이 두 유형을 4가지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우선, 상대방의 행동의 이유를 (1)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에 귀인한 경우(‘나를 깔보아서 내게 함부로 말한다’)와 (2)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귀인한 경우(‘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친구들 앞에서 날 깎아내리 나보다’), (3) 제 3자에 대해 상대가 정적 감정(호감)을 갖고 있다고 지각함으로써 생긴 3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오해의 경우(‘내가 맘에 들어하는 걸 알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내 친구가 잘 대해 준다’), (4) 상대방의 행동 이유를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정적 감정(호감)에 귀인시킨 경우(‘나를 후배로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내게 잘 대해 주나보다’)로 나누었다. 각 경우들에 오해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묶어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오해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은 당연하다. 이 외의 나머지 3 경우들에서 오해 당시 느끼는 감정은 남녀 공히 외부 지향적인 감정으로는 불쾌함과 화, 상대에 대한 배신감, 상대에 대한 미움, 비난을 보고하고 있고 내부지향적인 감정으로는 자존심이 상함, 자신에 대한 실망감, 슬픔등을 든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무엇을 오해했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이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의도에서 상대방이 행동한 것으로 지각했을 때와 자신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정적 감정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지각했을 때는 주로 불쾌하고 화나고 배신감을 느끼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비슷한 순위로 보고된 반면에 자신을 상대방이 싫어해서 행동한 것이라 지각했을 때는 불쾌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상대가 밉고 하는 감정이 상위 순위로 보고되나 배신감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자존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한 요소인 것을 시사해 준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말하자면 자신을 수용해

<표 7> 오해 종류별로 본 오해 당시 느낀 감정들의 종류와 그 빈도^a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로 오해(n=11) ^b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해(n=9)	제 3자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n=7)	나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n=3)				
배신감	9	불쾌, 화	7	불쾌, 화	5	기분 좋음	2
불쾌, 화	6	자존심 상함	7	배신감	4	황홀	1
자존심 상함	3	상대 미움	5	자존심 상함	3	불안	1
억울, 섭섭, 부당함	3	자신에의 실망	4	슬픔(치량)	3		
자책감, 자기실망	3	배신감	3	자책감, 자기실망	2	(오해임을 알고나서)	
상대 미움	2	섭섭함	2	열등감	1	기분 나쁨	1
답답	2	서럽다	2	수치심	1	상대 비난	1
외로움	1	초라해짐	1	실망감	1	비참함	1
슬픔	1	불안	1	섭섭함	1	배신감	1
불안	1	모욕감	1			자기 비난	1
부끄러움	1					부끄러움	1
소외감	1						

^a 한 사람이 여러가지 감정을 보고할 수 있어서 빈도는 중복적인 자료를 모은 것임.

^b ()의 숫자는 각 범주에 속하는 사례수임.

주고 인정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유지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상대가 자신에게 변함없는 존재이길 원한다. 즉, 자신이 기대하는대로 행동해 주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이 그 관계에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길 원한다. 물론, 이 생각은 검증되어야 할 생각이다.

7) 오해임을 알게 되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그 후 풀리기까지의 시간경과

오해란 용어 자체가 오해 현상이 사후설명적으로 존재함을 함축하고 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어떤 추론이 상대방의 설명과 어긋남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 자신이 내린 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오해였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 오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추론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성향적 판단으로 이어져서 '오해가 오해를 낳는' 사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또, 일단 자신의 추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상대방에 확인한 후 인정했다 하더라도 오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감정적인 응어리는 제

<표 8> 관계 별로 본 오해임을 알기까지와 풀리기까지의 시간경과

	오해임을 알게되기 까지 그 후 풀리기 까지					
	친구	애인	직장	친구	애인	직장
즉시-몇시간	2	5	3	4	6	5
하루	2			1		
1주일 내	1	3	2	4		1
1달 내	5	2 _{a,b}	1		2	1
6개월 내	1	2 _b	3	1	1 _a	1
1년 이상			1		1 _b	1
계	11 _a	12	10	10 _c	10	9

^a 입대함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두절될 수 밖에 없었던 한 사례임.

^b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정적 감정으로 오해한 사례임.

^c 전체 사례수가 적은 것은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한 사례들 때문임. 친구관계에서 2건이, 애인관계에서 2건이, 직장 관계에서 1건이 있었다.

^d 친구관계에서 한 사례는 오해이리라 생각되나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였음.

속 남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친밀관계의 유형에 따라, 또는 오해의 유형에 따라 오해의 확인이 얼마나 용이한지가 다를 수 있고 오해였음을 알고 나서부터 오해사건이 끼친 감정적인 앙금이 사라지기 까지 걸린 시간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표 8은 관계 유형 별로, 표 9는 오해 유형별로 오해의 확인까지와 그 후 풀리기까지의 시간경과를 조사한 결과이다.

관계유형 별로 오해의 확인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애인관계가 친구나 직장 관계보다 비교적 오해 여부를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해 사건이 있는 후 일주일 내에 오해였음을 알게 되는 사례비는 친구관계와 직장관계에서 약 50%이고 애인관계에서는 약 70%가 된다. 직장관계는 친구나 애인관계보다는 그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의 확인이 수월하지 않을 것은 예상되는 바이었으나 친구관계에서 오해 확인이 예상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의외였다. 애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친구처럼 또는 후배로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애인을 대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을 때처럼 기본 좋은 오해에서는 그 확인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은 재미있는 결과다. 엄격한 현실을 직면하기 보다는 행복한 착각 속에 사는 편이 더 나은가보다.

오해가 풀리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세 관계들에서 반수나 반수 이상이 오해임을 안 후 하루 내에 오해로 인한 감정이 다 풀리는 것을 보여 준다.

오해였음을 알게 되기까지와 알고 나서 풀리기까지의 시간을 오해자가 상대방의 행동원인을 귀인시킨 범주 별로 정리해 보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된다(표 9). 오해임을 알게 되기까지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부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각했을 때가 가장 빨라서 금방 화를 내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 오해임이 비교적 빨리 확인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지각되거나 제 3자에 대한 정적 감정을 갖고 있어서 3자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오해여부의 확인이 더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경우가, 또 상대방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을 경우가, 그 오해의 확인에 더 오래 걸림을 알 수 있다.

오해임을 알고 나서 그후 풀리기까지를 보면 오해의

<표 9> 오해자의 귀인 유형 별로 본 오해를 알기까지와 풀리기 까지의 시간경과

	오해임을 알게되기 까지					그 후 풀리기 까지				
	부적 의도	부적 감정	제3자에의 정적감정	정적 감정	성격	부적 의도	부적 감정	제3자에의 정적감정	정적 감정	성격
즉 시	3					5	5	3	1	1
1시간내	3	1								
하 루	1	2	2				1			
일주일	2	1	2			2	1	2		
1개월	1	4	2	1			1	1		1
6개월		1	1	1	2	2	1			
1년이상				1	1				1	1
계	10 _a	9	7	3	3	9 _b	9	6	2	3

* 한 사례는 오해일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임.

♣ 풀리지 않은 사례들로 하여 전체 사례수가 적은 것임. 이런 사례수는 상대방의 오해자 자신을 향한 부적 의도로 오해한 경우 2건, 상대방의 제 3자에 대한 정적 감정으로 오해한 경우 1건, 상대방의 오해자 자신에 대한 정적 감정으로 오해한 경우 1건이다.

유형에 상관없이 반수 정도는 즉시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제 3자를 좋아한다고 오해했을 때는 전체 사례의 나머지 반이 1주일과 1개월의 시간이 걸려서야 풀려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내게 부적의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오해했을 때는 오해로 인한 감정이 풀리는데 6개월이 걸리기도 하였다. 대략,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적 감정이 있어서 행동한 것이라 오해했을 때가 그것이 오해했음을 알고 나서는 가장 오해로 인한 감정의 찌꺼기가 빨리 풀리며 그 다음이 제 3자에 대해 정적 감정을 보인다고 오해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부적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오해했을 때가 가장 늦게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오해 대상자의 부적 의도로 오해했을 때가 부적 감정으로 오해했을 때보다 오해의 확인은 더 빨리 일어나지만 오해 확인 후의 감정이 풀리는 것은 오히려 반대여서 부적 의도로 오해했을 때가 부적 감정으로 오해했을 때보다 더 늦게 풀리는 것으로 시사된다.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

여기서 소개할 오해의 사례들은 표 3의 오해의 내용 중에서 (1) 상대방의 감정을 오해한 경우, (2) 상대방

의 부정적인 의도로 오해한 경우, 그리고 (3) 상대방의 성격을 오해한 경우에서 뽑은 것들이다. 이들은 오해의 심각도가 특히 크거나 전형적인 오해의 일화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오해한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1)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해한 경우, 2) 제 3자(이성인 경우, 동성인 경우)에 대한 정적인 감정으로 오해한 경우, 3) 자신에 대한 정적인 감정으로 오해한 경우로 나누어 사례들을 선택했다. 또한, 관계별로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관계마다 해당 사례들을 기술하였다.

1)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해한 사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또는 낮게 평가해서 나온 것이라고 오해한 사례들은 모두 9사례로 친구관계, 애인관계, 직장인 관계에서 각각 3개 사례씩 있었다. 각 관계별로 1사례씩을 들어 본다. 친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 이 경우는 같은 서클의 동성친구(여자)가 자신을 싫어하나보다 오해한 경우다. 상대방과 알고 지내지는 오해 당시까지 3개월 정도로 약간 친한 정도였다. 오해자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할 때 특특 잘 쏘고 무뚝뚝하게 행동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고 한다. 신경에 많이 거슬리다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에이, 신경을 끊자”고 했다. 오해했을 당시에는 신경질 나고 화도 나고 상대방이 딴치고 자존심이 상했다.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에 대해 무척대고 일방적으로 나쁜 감정만 생기더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녀의 나쁜 점만 보는데 급급했다. 상대방에게 직접 왜 자기에게 쌀쌀하게 구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오해인 것이 드러난 것은 상대방이 서클을 나가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고민거리를 드러내 놓고 오해자에게만 말하노라고 한 편지를 받고서였다. 편지를 받은 후 1-2일만에 오해는 풀렸고 상대방이 걸으려는 차갑더라도 속은 남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어 더 내면적으로 상대방과 진밀해진 것 같고 자신도 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어떤 고정된 틀 속에 남을 집어 넣어 그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의 입장에서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애인의 자신에 대한 사람의 정도를 오해 이 사례는 오해자인 남학생이 자신의 애인을 오해한 경우다. 오해자는 애인과 사견지 3년 되었고 서로 아주 친했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애인인 여자가 오해자의 친구들 앞에서 오해자의 좋지 못한 버릇과 습관, 행동등을 꼬집어 말했기 때문이다. 오해자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고 상대방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시 오해자는 친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자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자신이 어떻게 했기에 여자 친구가 날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었는지? 하고 자신에 대한 약간의 회의도 일어났다고 한다. 그날 친구들과 헤어지고 난 후 애인에게 친구들과의 자리에서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애인은 친구들 앞에서 칭찬하자니 쑥스러웠고 그러면 ‘팔불출’인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오해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오해였음을 알고 나서도 며칠 간은 상대방 애인이 과거에 했던 좋지 못했던 행동들이나 기억들만 떠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무뚝뚝하게 대했고 애인과의 관계가 몇 주일간은 서먹서먹했다. 상대방은 자신의 눈치를 보는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친구의 생일 때 여자 친구가 자신과 친

구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풀리게 되었다고 한다. 직장 동료가 자신을 낮추어 본다고 오해 이 경우는 사무직 여사원이 같은 급의 남자 동료 사원이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이다. 오해자는 상대 동료 사원과 알고 지낸지 3년 쯤 되며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웬만큼 친한 사이이다. 오해를 하게 된 것은 동료 남자 사원이 오해자의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여사원에게 맡겨 버려서였다. 자신이 뭘 잘못해서 미워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오해했을 당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가장 크게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업무 외에도 잘 지냈고 친했던 편이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옆의 여사원이 더 오래된 사원이어서 나보다 일을 더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인가 싫기도 하면서 그 여사원에 대한 질투심과 내가 더 실력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격지심, 자존심 상함 등의 감정이 일어났다. 이 일이 있고 2-3일 간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자신이 당하는 쪽으로만 계속되었고 질투심 같은 것도 끼어들어 금방 이유를 물어 밝히려는 것보다는 두고 보는 쪽으로 더 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엔 자신이 당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 한다. 그러다 자신이 잘못한게 있는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오해자가 그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안스러워서 옆 사람에게 맡겼었다고 답해 줌으로써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다. 오해 사건 후에는 상대방이 남을 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어 전보다 과원으로서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2) 제 3자를 좋아한다고 오해한 사례

상대방이 자신이 아닌 제 3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경우들은 1사례만을 빼고는 다 친구관계와 애인관계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애인관계에서의 제 3의 인물은 물론 자신과 동성인 사람이지만, 친구관계

에서는 동성인 경우와 이성인 경우가 있었다.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한다고 오해 이 사례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자란 죽마고우가 오해자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친구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다. 오해자가 어떤 여학생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친구(동성)는 그 여학생은 자신이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얘기 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그 여학생에게 잘 대해 주어서 그 여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오해자는 친구가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그동안 사귀어 온 것이 불쾌하게 생각되었고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어긋남을 느꼈다. '한방 먹었다'는 식의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감정에다가 친구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더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한 열등감과 늦되었다는 수치심도 느꼈다고 보고 했다. 처음엔 그 여학생에 대한 생각을 계속 물어보았으나 화만 내고 얘기하지 않아서 도리어 그 친구에게 화가 났고 그 친구를 피했다. 이 일이 있은지 약 2주일 후에 친구가 오해자와 여학생을 다리 놓아주려고 자기는 싫지만 그 여학생에게 잘해 주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 자신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니까 그게 화도 났고 또 오해자가 처음 여학생을 아는 것이어서 '다리 놔 주겠다'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말해 줄 수 없었다고 얘기해 주어서 친구의 선의를 잘못 오해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 여학생에 대한 호감을 얘기했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늦게 시작되어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도 해서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오해 당시에는 화가 나서 친구의 선한 의도를 미처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해가 풀린 후에는 친구를 사려깊은 애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견이 좁고 웅졸하며 상대방에 대한 한 순간의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런 면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친구가 다른 동성친구를 좋아한다고 오해 이 경우는 오해자인 여대생이 현재로서는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동성 친구가 다른 동성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 사례다. 오해자는 M.T.를 갔었는데 자신이 잠자던 중에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오해자는 이 친구와 진심으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것같지 않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당시에 화도 나고 슬펐고 날 덜 좋아하 나보다는 실망감이 있었다. 또 처량해진 느낌이 들었다. 친구에게 무관심한 척했는데 그 친구가 다음 날 아침 오해자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말해 주어서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하루 이틀 지나면 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가 풀렸는데 너무 상대방에 대해 깊이 알고 하는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그 친구하고도 담담하게 지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오해 이 경우는 아주 친한 사이인 애인(남)이 모르는 여자의 좋은 점들을 상세히 장황하게 늘어놓는 전화를 받고 자신을 더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오해한 여대생의 경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싫어져서 그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나로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오해했을 때, 배신감과 화가 났고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슬퍼졌다고 한다. 또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때 애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동이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오해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 후 1주일 간은 혼자 과민반응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비굴함 까지 느껴졌고 감정을 드러내면 자존심 상하니까 내색을 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받아 주었다. 그 후 상대방과의 대화 중 그 때의 이야기를 오해자가 먼저 꺼냈다. 상대방은 그때 아무 의도 없었고 생각없이 한 얘기였다고 답해 주어서 오해였구나 생각했고 또 상대의 태도가 이전과 다름이 없어서 감정이 다소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감정적인 앙금은 금방 풀어졌다고 한다.

3) 자신에 대한 정적인 감정(사랑)으로 오해한 사례

소개할 사례는 한 남학생이 서로 안 지 3년 되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지는 2년 된 여자 친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한 경우다. 오해자는 상대방과 상당히 친했다고 보고 했다. 여자친구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비 오는 날 둘이 다 우산이 있었지만 여자 쪽에서 같이 우산을 쓰자고 한 것이었다. 오해자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길 바

랬었기 때문에 여자쪽의 진정한 감정을 확인해 보려하지 않았다. 당시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특정 사건이 있는 16개월 후에 오해자의 감정을 전해 들은 상대방 여자가 제 3자를 통해 이성(異性)으로서, 사랑해서 교제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얘기함으로써 오해였다고 생각 했다. 오해였음을 알았을 때는 비참했고, 전해준 제 3자에 대해 배신감도 느꼈고, 왜 그 때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하는 우울부단한 자신에 대한 비난도 일었고, 혼자만 오해하고 당했다는 느낌,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 남학생은 그러나, 오해였음을 알고서도 여전히 상대방 여자를 좋아했고 상대방이 그 후 자신과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가끔은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이런 상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까지 계속되어 3년 4개월간을 오해가 지속되었다. 말하자면 당사자로서는 아직은 오해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군에 있으면서 친구를 통해 여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어머니는 아니라 하셨을 때, 이렇게 까지 해도 되는가 생각했고 비로서 상대 여자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4) 부정적인 의도로 오해한 사례

오해를 일으킨 상대방과의 관계별로 한 사례씩을 들어 본다.

친구의 행동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경우 이 남학생은 오해한 대상과 15년간 사귄 사이였고 서로 상당히 친했다. 당시에 오해자는 대학생이었고 상대방은 재수 중이었다. 오해가 일어난 사건은 술자리에서 친구가 자신에게 농담으로 보기엔 강도가 강한 약간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었다. 오해자는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너무 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고 자신을 깔보고 막대하는가?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얘기하곤 절교 선언하며 뛰쳐 나왔다. 그 다음 날 친구가 전화를 했고 오해자의 방황하고 무계획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으며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주어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친구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배신감을 느꼈고 친구에 대한 실망감도 들었으며 자신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 생활

했는가 싶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 자책감도 들고 자존심이 상했다. 아마 자리를 뜨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나누었다면 오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테지만 자신의 성격이 급한 편이고 친한 친구들에게는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친구 만나는 것을 항상 불편해 했었고 또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전화 후 일주일 뒤에 돌아 만나서 차분하고 좀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얘기하게 되었고 오해는 풀렸다. 이 사건 후에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굴곡없이 밋밋하게 지낸 친구 사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서로를 좀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애인의 행동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경우 이 남학생은 사귄지 5년 된 아주 친한 사이인 애인이 자신의 군 입대 환송식에 나오지 않자 자신을 떠나려고 그러나보다고 오해한 경우다. 오해자는 상대방이 자신과 아주 친하고 잘 아는 사이기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몇번 전화를 해도 다른 이유도 없이 나가기 싫어서 안나간다는 말을 듣고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감을 느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고 군대에 들어갔다. 오해였음을 알게 된 것은 애인으로부터 약 1달만(그 동안은 군에서 편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에 편지를 받고서였다. 상대 여자는 그 날 헤어지는 것 보는데 마음 아프고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나간 것이라고 이유를 썼다. 당시에 애인의 입장에서, 특히 그녀가 여자란 생각을 했었다면 오해가 없었을지도 모르나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회상하고 있다. 오해했을 당시엔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과 상대방이 싫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오해였음을 알고서는 상대가 너무나 생각이 깊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골랐다는 자신의 안목에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로 더 친해질수 있었고 6개월 후 휴가를 나갔을 때, 애인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줌으로써 완전히 오해가 풀렸다.

직장 동료의 행동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경우 오해자는 나이도 급호도 자신보다 낮지만 먼저 들어온 직장 동료가 자신의 발 버릇이 발달 비슷

하다는 식으로 충고를 한 것을 먼저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오해자는 상대방도 자신에게 가끔 반말 할 때가 있어서 그 때마다 기본이 불쾌했었고, 신입사원으로 그곳 기존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동료 사원의 평가가 안 좋았고, 또 자신이 특채 형식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다른 사원들의 반응에 대해 민감한 상태였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던 상태였다. 더군다나 아침이었고... 이런 복합적인 배경이 상대의 행동을 오해로 연결되게 만들었고 곧바로 반발하는 반응을 하게 만들었다. 오해했을 때는 '자기 알기람도 잘못하면서 나한테 그러냐', '자기도 약한 부분이면서'란 생각들이나 상대에게 화가 났고 억울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 전에 상대방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해자 자신도 상대방에 대해 낮추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자신도 상대방에게 신경써서 대우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에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가 더 친숙해 질 수 있었고 서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사건의 배후에 깔린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또는 그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한 의사소통은 없었지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상대방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을 그때마다 지적해 주는 조심성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 2개월 반 쯤 후에는 오해 사건으로 인한 감정은 다 풀리게 되었다.

5) 상대방의 성격을 오해한 사례

이런 사례는 3건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직장 내의 관계에서 동료사원의 성격을 잘못 판단했던 한 사례를 든다. 이 여사원은 상당히 친했던 동료 남자 사원의 성격과악을 잘못했었구나하고 깨닫기까지 3년이 걸렸다. 동료 사원은 모두에게 웃으며 밝은 모습으로 행동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여사원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 여사원은 그가 인간적으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는 일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동료 사원의 좋은 점들이 부러웠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부탁하면

들어주리라 예상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도 지냈더라 그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그만 부탁을 했었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화를 내며 거부했다. 자신의 동료사원에 대한 판단이 오해였음을 알았을 때는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고 사람 일반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속았다는,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들었고 당황스러웠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가 친절하게 대해준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자료 중 그 동료 사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이 사건 후에 그 동료를 대하는데 있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거리감이 있었고 자료를 제공받기를 원할 때,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의 행동 변화로 인한 감정은 쉽게 풀어질 수 없어서 오해(정확히는 오해였음을 알고나서 생겼던 감정)가 풀리기 까지 1년 정도 걸렸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직장 내의 조직생활을 하는 입장이어서 덮어버리고자 한 것이다.

6) 오해사례들에서 시사되는 사회심리학적 사실들

위에 소개한 오해에 관한 사례들 속에 드러나 있거나 거기서 유추되는 오해에 관한 또는 대인관계 일반에 관한 사회심리학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오해했을 당시의 오해자의 생각은

1) 객관적이지 못하다. 오해 대상자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정보(특이성 정보)를 생각해보거나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거나 오해대상자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들(일관성 정보)을 돌아보려하지 않는 다거나 한다.

2) 방어적이다. 오해자는 오해대상자의 나쁜 점만 보려 한다거나 그/그녀에 대한 나쁜 기억들만 떠올린다.

3) 반복적인 생각속에 몰입한다. 오해자는 오해대상자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까? 란 의문을 계속한다거나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2. 이자관계에 있는 두사람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망을 고려하지 못할 때 오해가 일어나기 쉽다. 오해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오해대상자의 행동도 오해자가 보기에 기대치 않은 행동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오해대상자는 그런 자신의 평소와 다르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상대에게 기칠

영향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애인관계에서 사랑이 배타적이며 소유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관계에서도 배타적인 호감(liking)을 '친함'의 지표로 삼는다.

4. 이자 관계에서 그 관계에 더 의존적인 쪽에서 더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오해자는 오해가 있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민감성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상대방의 평가를 중시하고 있었다거나,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거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거나, 자격지식 같은 것이 있었다거나 했다.

5. 오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계들로 진행된다;
오해발생 (행동, 사건 또는 문제의 오지각)

↓
오해존재의 확인(양자의 설명의 차이의 인지)

↓
오해 인정(자기 판단이 오류임을 시인)

↓
푸는 단계(오해로 생긴 감정의 정리)

오해자가 상대방의 오해유발행동에 대해 잘못 지각하거나 판단한 후, 그런 오지각이나 오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있게 된다. 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오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오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들과 연구를 위한 몇가지 문제 제기

오해의 기제

앞에서 제시된 표 3에서 살펴본 대로 오해는 외적인 원인에서 나온 상대방의 행동을 내적인 원인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 추론한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어떤 내적인 이유에서 한 상대방의 행동을 다른 내적인 이유에서 한 행동으로 잘못 추론하는데서 발생한 오해임을 보여 주었다. 즉, 내부귀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의도인지 아니면 어떤 감정인지(나와 거리를 두려는 생각에서/내가 싫어서), 의도면 어느 특정 의도 인지(보면 더 피차간에 괴로울 것 같아서/날 떠나려고 군 환송식에 안나왔다), 이런 감정인지 저런 감정인지(나를 좋아해

서/나를 사랑해서) 간에 상대방과 오해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부 귀인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내용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Orvis 등(197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잡아 낼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행동들에 대해 양자가 내건 상위한 설명들을 통합하여 분류하고 각 가능한 설명들의 쌍이 서로 대치된 것으로 보고된 빈도를 조사했다(표 2, p.367). 이들 조사에서는 응답자 자신이 행위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행위자일 수도 있는 점이 본 연구와는 다르지만 그들이 제시한 표에서 각 원인들을 내부와 외부원인으로 분류하여 다시 검토해 보면, 기대치보다 유의하게 더 빈번하게 보고된 쌍들에서 두 원인의 쌍이 외부-외부인 경우가 58번, 내부-외부(또는 외부-내부)인 경우가 35번, 내부-내부인 경우가 88번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요인들 내에서 설명이 상치되는 것이 다반사임을 보여준다.

오해에 있어서 행동의 내부원인들 간의 추론의 방향이 오해자와 상대방 행위자 간에 달리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Heider(1958, p.36)의 동의어식 중개(synonymous mediation)와 모호한 중개(ambiguous mediation)의 개념을 도입해 보았다. Heider는 지각의 대상이 되는 원격자극은 어떤 중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중개가 원격자극 즉 환경(사물이나 사람)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응(coordinate)되어야 한다. 이 대응의 원리를 위에 언급한 두가지로 본 것이다. 동의어식 중개란 둘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이 동일한 원인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어서 어느 행동이든지 그 원인을 나타내는 표시(sign)가 되는 대응방식이다. 모호한 중개란 한가지 행동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원인들에 대응되는 경우이다. 이 때는 그 행동 자체가 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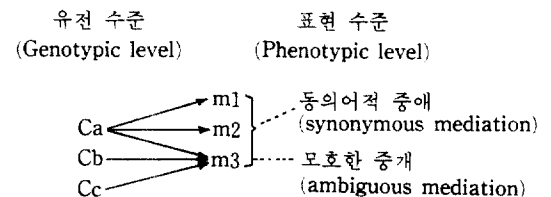


그림 1. 모호 및 동의어적 중개(Heider, 1958, p.36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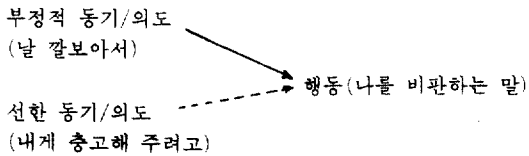


그림 2. 오해에 대한 Heider식 도식과 그 한 예.
(실선은 오해자의 추론에 해당되는 연결이며
점선은 상대방의 설명에 해당되는 연결이다.)

들 중 어느 한 원인이든 그 원인의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림 1은 Heider가 제시한 그림이며 그 그림에 따라 오해의 예들을 그린 것이 그림 2이다.

내부적인 간의 차이로 오해가 일어난 경우들을 보면 (그림 2) 상대방이 말하는 행동의 이유와 오해자가 지각한 행동의 이유가 동일하게 한가지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대응방식인 모호한 중개(ambiguous mediation)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판하는 행동은 그의 선한 의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오해자가 선한 의도보다는 부정적 의도 쪽으로 더 쉽게 추론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Heider(1958)는 “중개사상의 모호성은 원격 자극을 나타내는 자극이나 표현이 전체 상황 속에 끼워져 있을 때 감소된다”(the ambiguity of mediation events is reduced when the stimuli or manifestations referring to the distal stimulus are embedded in the total situation, p.37)고 하여 특정 사례에서의 상황적 맥락이, 표현된 행동이 여러 가능한 내용들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지 결정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친구는 휴지를 찾으려는 것이었는데 내 돈을 훔치려는건가? 하고 오해한 경우는 당시에 등록금을 내는 기간이었고 자신의 책가방 안에 마침 등록금이 있었다는 상황적 맥락이 있으면 가방을 뒤지는 행동의 의미가 더 명확해져서 내 돈을 훔치려고 하나? 쪽으로의 추론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상황 맥락이 오해하는 방향으로의 추론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 원인들이 엇갈린 모든 오해의 예들에서 오해하는 방향으로의 추론이 일어나는 것을 상황적 맥락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위의 그림 2의 경우는 오해자 자신의 생활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신도 그런 모

습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런 오해자 자신의 자기 보호적 내지 자기 방어적인 심리적 상태를 상황적 맥락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또, 오해자 자신이 상대방을 애인으로 삼고싶은 욕구가 선재(先在)하고 있어서 후배로 보아 친절히 한 행동을 진짜 애인으로 생각해서 친절하게 해주는 쪽으로 추론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오해자 자신이 오해 장면에서 갖고 있던 심리적 상태, 거기서 비롯되는 욕구나 기대 등이 오해하는 쪽으로의 추론을 상당부분 결정하는 것 같다.

어쨌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추론의 끈이 다른쪽 방향으로의 추론의 끈보다 왜 더 강한지, 또 내부 원인들 내에서의 귀인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어떤 기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오해의 자기 관련성

관찰자로 하여금 행위자의 행동원인을 추론하도록 요구하는 종전의 추론은 그 추론이 자신에게 되돌아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는 일방향적인 상대방에 대한 추론이었다. 오해, 특별히 각각자 자신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해는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거나 자신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예: 나를 무시하나보다, 나를 싫어하나보다, 나를 헐어지려나보다, 내 것을 훔치려나 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전화 중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다른 사람과 싸우시나 보다고 오해했다면 그것은 오해자 자신에게 별 영향을 미칠 것이 없는 사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34개의 오해 사례들 중에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도로 오해한 예가 20건이며 제 3자에게 정적 감정을 가진다고 오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에의 부정적 감정을 유추할 수 있었던 예가 7건이며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오해한 예가 3건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오해한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자기 관련성은 불가불 오해자에게 어떤 동기적인 세트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동기적인 세트를 취할지는 오해가 여러 감정들을 수반하며 일어나는 것(표 7 참조)을 통해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용이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안 전감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전

- nondistressed couples :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1, 71-86.
- Fincham, F.D., & O'Leary, K.D. (1983). Caus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 42-57.
- Flanagan, J.C. (1954).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Psychological Bulletin*, 51, 327-35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 Wiley.
- Holtzworth-Munroe, A., & Jacobson, N.S. (1985).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 When do they search for causes? What do they conclude when they d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398-1412.
- Thompson, S.E., & Kelley, H.H. (1981). Judgments of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69-477.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Orvis, B.R., Kelley, H.H., & Butler, D. (1976). Attributional conflict in young couples. In J. H. Harvey, W.J. Ickes, & R.E. Kidd (ed.),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 1. Hillsdale, N.J. : LEA.
- Swann Jr., W.B., Pelham, B.W., & Roberts, D. C. (1987). Causal chunking : Memory and inference in ongoing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58-865.

An Exploratory Study of Misunderstanding as a Social Psychological Phenomenon

Mi-Young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ata on misunderstandings occurring in intimate relations were obtained through interviews of 34 persons(24 college students and 10 office workers). The most frequently, misunderstanding due to a different assignment of the partner's behavior among internal causes between the misunderstander and the partner (as seen by the misunderstander) were much more frequent than the misunderstanding due to a difference in the locus of attribution(internal/external). The partner's behavior with positive or neutral intentions was misperceived as showing negative affects or evaluations toward self and less frequently as showing positive affects to a third person or negative intention directed to self. On rare instances, the misunderstanding involved a perception of romantic attraction on the part of the partner to self. Behaviors which instigate misunderstandings were generally negative behaviors directed to self and positive behaviors to a third person. Displeasure, anger, injured self-esteem, and sense of being betrayed were commonly reported affective responses accompanying misunderstanding. The misunderstandings involving a perception of negative intentions were most quick to be recognized by the person, whereas the misunderstandings involving positive affections were recognized by the person more slow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